

전파연구모임

일시: 2013년 4월 27일(토) 3시-6시

장소: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회의실

참석자: 하영선, 손열, 윤비, 김성배, 이헌미, 도종윤, 송지예, 용채영

발제: 이헌미

Shogo Suzuki, *Civilization and Empire: China and Japan's Encounter with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Routledge, 2009)

<토론>

윤비: 최근에 저는 Imperialism, hierarchy를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음. 저자는 구성주의를 방법론으로 채택했다고 하면서 learning process를 강조했는데, 구성주의는 learning process 이전에 무엇을 갖고 있었는가가 중요함. 서양의 국제질서를 우리가 항상 배워왔듯이 당시에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전혀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보았는가? 서양질서를 equaled states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제국주의도 unequal들 간의 관계를 이해했다라면, 두 개의 질서의 교대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제국주의에서 새로운 제국주의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일본은 이전의 중국적 제국주의질서에서 서양의 제국주의 질서가 있구나라고 봤을 것이라는 것. 중국의 hierarchy가 웨스트팔리안적인 평등질서로, 하나의 hierarchy가 다른 hierarchy로 전환되면서 선택을 강요 받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이전의 서양적인 hierarchical model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스즈키에 대해서 회의적. 기본적인 모델의 논의 이상이 없는 것이 아쉽음. 이 사람이 구성주의적으로 국제질서의 변화관을 추적하겠다고 했지만 적합한 개념적 도구를 갖고 추적하고 있는가.

도종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국제사회, 문화, 규범에 대해서. 국내적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면 어땠을까. 중국과 일본이 국제사회에 가진 관념이 달랐고, 문명이 들어왔을 때의 내부적인 논의가 무엇이 있었는지 더 보았다면 좋았을 듯. 지식사회학적 측면에서 스즈키 쇼고의 글을 본다면 유럽사람들에게는 신기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였을 듯.

하영선: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전에 영국국제사회학파를 다루는 특집을 냄. 발제자는 19세기를 국제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것 찬성했을 것 같나? 혹은 유혹되는 부분은?

이헌미: society는 중요하다. 동아시아에 대해서 더 적실한 것은 19세기가 아니라 지금이다. 현재 국제 사회론을 갖고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 할 수 있을 듯. 결론에서도 반복하는 부분은 국제사회라는 논의, 이 사람들은 국제사회를 존재로도 생각하고 당위로도 생각한다는 것. International society를 이야기할 때 비판하는 것은 realism의 anarchy임.

하영선: 영국학파가 society라고 했을 때, 불(Bull)은 society의 정의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발제에서 동의 안 하는 부분은 이 책은 생각보다 자세히 읽어줄 필요가 있는 책이다. 영국학파라는 부류들의 사회에 대한 정의를 동아시아로 가져오는 데의 두 개의 딜레마가 있는데, '동아시아 국제사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윤비: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 있음. Society를 하면 평등한 개인체의 연합체로서 society, 반대로서 hierarchy, 그 밖에 anarchy라는 구분선이 있음. 서양역사에서 보면 자기가 겪은 경험의 일정부분을 selective하게 만든 것. 과연 16세기 자유주의가 부상하면서 만든 이 모델이 처음부터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적절한 구분인가? 이를 가지고 국제정치를 describe할 수 있는가? 이 구분을 동양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가? 서양학자들의 것만 건드리고 가면 안 됨. Anarchy, hierarchy 개념만 가지면 중세 위계질서도 이해 못하고, 동양의 것도 이해 못할 것임. 적용의 문제는 19세기라는 장을 놓고 영국학파들이 가진 것을 적용하느냐, 아니냐인데 더 복잡하지 않지 않는가?

하영선: 나는 국제사회론을 쓰지 말라는 입장인데, 이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는 Wight, Bull 등을 알아야 함. 스텝키를 보면 그것보다는 더 리딩이 있음. 중국질서를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전혀 공부 없다고 하기 어려움. 그 당시의 중국문헌의 reading이 없는 사람이 영어적인 concept으로 쓴 것은 David Kang. 영국학파가 복잡하게 일을 벌린 것은 아니고 어원적으로는 역사적인 것, 개념사적인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박하게 생각. 사회를 Interest가 공유되는 사이에서의 행동의 규범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는 모습이라고 정의. 발제자와 다르게 읽은 부분은 스텝키는 1장을 socialization into society라고 씀. 페어뱅크(Fairbank) 글을 보면 스텝키는 당황할 것임. 이 책의 전체 질서는 선생님들이 쓴 것이고 스텝키는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를 비판하면서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사회화를 역지로 가져오고 있음. 이는 해당 당사국들의 이야기를 자기 나름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Challenge and response를 보면 스텝키도 그 괴로움이 있음. 비판을 하려면 다른 각도로 해야했음. Socialization 자체로 걸고 넘어질 부분은 있음. 이를 사회화로 표현해야 하나 아닌가. 칭화대의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에서 가장 최근 논문이 two-way socialization임. 푸 샤오(Pu Xiaoyi)라는 학자도 비슷한 이야기함. 사실 넓게 보면 전파이론의 싸움임. 저쪽에서부터 sender가 보는 것이고, receiver가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푸 샤오도 오늘의 미중관계를 보면서 국제정치적 사이클에서 보는 듯이 도전국이 등장하면 반드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 싸울 수도 있다. BOP의 대표선수인 슈웰러(Schweller)와 같이 쓴 "After Unipolarity"에서 중국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norm-diffusion이 가능한가 이야기. Established power만이 norm을 전파하는가, Emerging power의 norm-diffusion은 어떻게 가능한가? Sender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확대된 것인가? 군사적, 경제적, 규범적으로 된 것이라면 복합임. 여기서야 누스로 이야기 하는 것과 비슷. Receiver의 입장에서 보면 다가오는 socialize도 있고, 국내적인 socialize도 있음. 전통질서에서 저쪽의 질서로 다시 엮는 프로세스로 넘어감. 스텝키가 혼란스러워 한 것처럼 동아시아를 꼭 society로 불러야 할지 애매함. 이익을 공유하는 관점에서 생겨난 행동의 공통된 rule, 또는 제도가 만들어진 모습을 사회라고 부른다. community라고 반대된다고 하면 전통 중국에는 전혀 잘 안 맞음. 중국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님. 중국이 이적국가들에게서는 interest만 작동하고, 예부에 속하는 국가들 case를 만듦. (?) 이를 international society로 본 것이 문제. 더 큰 문제는 Japanese world order를 비슷하게 쓰려고 함. 처음 중국질서가 있다가, 명청 시대에서 일본적인 세계질서가 있었다고 해서 대 혼란. 그 다음에

청과 메이지가 둘 다 시도를 했는데 왜 일본은 쉽게 socialize를 하고, 청은 되지 못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일본은 기존의 status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설명. 일본은 중국과 대등한 질서라고 생각하고 서양으로 넘어갔다고 씀. 동주는 그게 아니라 일본은 혼자 소중화, 일본 천하질서를 이야기했지만 이는 아무한테도 impact가 없으므로 놔둔 것이었기 때문에 서양으로 쉽게 넘어간 것이라고 함. 그런데 스즈키 쇼고는 청, 일을 비교하면서 socialize의 딜레마를 거의 비슷하게 씀. 그러나 중국이 전통질서에서 서양질서로 전파, 변용하는데의 딜레마와 일본의 딜레마는 사실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각각의 드라마가 전체 글에서 살아나지 않는다. 청, 일을 두고 새로 변화하는 터닝포인트는 1874년. 이홍장이 연미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왜 그런 옷을 입는가라고 했을 때 전혀 외교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보았음. 1873년부터 상당한 차이를 주는 것이었음. 그 드라마를 일체적으로 쓰지 못하고 1차 자료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비판하지 못했고, Process를 더 드러나게 해야 했다. 이 책은 영국학파에서는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 Edward Keene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팽창이전에 전통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보았지만 스즈키만큼 1차 자료를 읽지 않음. 전파의 receiver가 빠져있다.

따라서 우리가 못하니까 스즈키가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전파의 이론화를 sender-receiver를 둘 다 1차 자료를 포괄해서 쓴다고 하면 sender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야누스의 2면이 아니라, 군사력, 금력, 규범력의 삼면성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봤는지 쓸 필요가 있다. 받더라도 내부의 딜레마가 한, 중, 일이 다 다르게 국내적으로 일어남. 전파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개화와 전통의 충돌. 교과서적으로 잘 정리를 했는데 더 dramatize해야 함. 중국도, 서양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부강으로도 대응하지만 한 쪽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 그게 전파이론의 전체 상이 될 것임. 푸 샤오는 rising star인데 21세기의 diffusion에 대해서 씀. 중국의 국제사회화에 대한 연구에 대해 칭화대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의 축적이 되고 있음. 한국은 main에서 양쪽에 치이는 부분을 썼고, 여기는 김기엽씨가 인용됨. 김기엽은 그나마 다행.

윤비: 이 사람은 어떤 모델을 갖고 쓰는가? 19세기, 웨스트팔리안 이후의 질서가 두 측면이 있었다는 것, 문명화된 국가의 equality가 있었고, imperialism이 있었다는 것. 동아시아의 유럽질서를 볼 때도 이 두 모델을 전제로 간다. 양쪽이 경험한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었고, 각자 interpretation한 것이 달랐다라고 보기 보다는, 서양이 만든 질서를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보았겠는가로 봐야 함. Equal들 간의 관계, 주권국가들 관계는 중국적 제국질서가 '주'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들어온 쪽에서 뭘 하자고 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그 사람들이 경험한 유럽질서가 무엇이었는데 보려면 이 level보다는 더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함

하영선: 그것을 깊이 있게 해서, 국제학계를 어떻게 때리는가? 저쪽의 담론들 안에서 쇼고 스즈키는 영국학파의 담론들 안에서 자기 나름의 role을 한 것인데, 한국이면 한국의 19세기를 더 심층적으로 해서 만약 global하게 debate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이런 논의가 뜬 것 자체가 결국 21세기의 미중관계 등에도 다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헌미: 사회를 볼 때 interest만 핵심은 아니고 identity만도 봄. 국제적 차원의 identity는 각 정치체들의 role perception이라고 함. 영국학파가 보는 행동은 기능이 중요하지 내재화라든지, 행태를

신념의 표출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신념의 단계까지는 안 가는 것임

하영선: 정체성은 더 심화가 되어 하지만 내가 국제사회를 쓸 때 하지 할라고 한 이유는 만약 19 세기를 국제사회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딜레마는 국제사회 속에서 나라를 잃는 것이었다. 국제사회라는 정의가 interest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동의 공통 rule, 제도 형성의 초보적 단계를 사회라고 본다면, 우리가 망하는 것은 당시 국제사회가 형성되는 과정과 같음. 19세기가 싸움판이라고 봐야지 우리가 망한 것이 이해가 되지..

이헌미: 우리의 정치적 실존으로 가기 전에, 저자의 사회개념이 여러 문제가 내재됨. 자유주의적인 사회계약론적인 사회와, 국내정치공동체를 생각할 때의 사회와 국제차원의 사회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계약론적인 사회의 기초는 member들의 생존과 자유라는 공통된 신념이 있음. 실제 계약이 아니라 계약에 의존할 수 있는 원초적 공동체인데, 유럽차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장시켜서 정당화할 수 있다. 다른 사회에서는 역사, 문화 등이 안으로 구성된 이야기라고 해도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종류의 사회가 권력의 정당성의 문제를 계속 마주치게 됨.

하영선: 불의 경우에는 anarchical society가 대표적. 화이트(Wight)의 삼분법 중에 불은 죽기 전에 그로티우스(Grotius)에 꽃힘. 미국 국제사회가 다 아나키라고 하는데, 자신과 영국학파적 시각에서는 무정부적 사회로 보인다고 하면서 그 지적 기원을 그로티우스로 부활시키겠다고 함.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질서를 들여다본다면 어떤 모습이 있길래 이를 무정부적사회로 부를 수가 있는가? 무정부적 사회, 국제법, 전쟁, 외교, great power, 세력균형. 이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완전히 아나키로 보기도 어렵고, 국내적으로 보는 모임요소와도 다름. 이런 요소들로 국제정치를 보는 것이 어떤가?

김성배: 19세기 그 시기를 영국학파가 아니라 미국 학파식으로 봐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제국주의도 있고. 혹은 독일학파가 있다면 어떻게 보았을까?

윤비: 아주 간단히 보면 society, hierarchy, anarchy라는 것은 영국식 자유주의적 구분법이었다. (학자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7세기 프랑스 궁정은 위계, hierarchy-equality의 구분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함. 그래서 이를 society라고 함. 불도 지배자는 없지만 국제정치가 돌아간다고 자기가 묘사하려고 해 본 것인데, 국제정치학을 보면서 그런 영국에서 보는 좁은, 영국의 자유주의가 발원시킨 질서구분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규범적일 수 있나? society라고 불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헌미: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대안이 무엇인가?

김성배: 충분히 공감. 40페이지 organizing society를 보면 그런 뉘앙스를 봄. 만국공법의 서문이 장황하게 나오는데, 그 글에서도 대부분 서양 국제질서를 춘추전국시대로 보면서 결코 이상적으로 보지 않음. 우리의 조직원리는 예(禮)로써 위, 아래가 있는 질서여야 함. 무질서는 전혀 이상적으로 보지 않음. 만국공법의 수용은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적으로 되는 것이 문제임. 영국학파가

미국에 헤게모니를 내주고, 자기가 규범적 위치를 만들면서 개발한 이론인데, 적나라한 power politics로도 안보고, 문화적 요소도 선택적으로 본 것. 한국관점에서 보면 power 부분이 있고, civilization의 부분의 두 개가 있어야 함.

윤비: 독일학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영국학파와 realist의 싸움은 140년 전에 이미 시작. 19세기 말부터 독일에서는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 로크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씀. 여기서 형성된 것이 realist 담론임. 독일인들은 무어나 로크, 영미권의 지적 전통을 보고 naive하다. 현실세계는 국내, 국제질서에서 규범적인 것이 차지하는 것이 적다.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Hypocrisy라고 함. 볼, 화이트가 realist들을 밀어내는 것은 이 논쟁을 국제정치학에서 다시 벌인 것으로 대륙적-반대륙적인 관점의 대결이다.

김성배: 국제정치에서 common good이 무엇인가? 평화인가? 영국학파는 그것도 아님.

하영선: 볼의 feel, 자기의 목표는 질서임. 싸움이 안 나는 것.

---- : 내전상태가 흡수적으로 없어야 하는 것. 식민지에 대한 폭력은 경찰행위처럼 합리화되는 것임. 하지만 이는 order에 반하고, 생존에 반하는 것인데.

하영선: 한국학파는 어떻게 가야 하나?

김성배: 제국주의로만 설명해도 안 됨. 한국에서 본 복잡한 감정 담기 어려움. 개화파들도 소박하게 넘어간 것은 아님. 서세동점이 오는 것을 보면서 올라타고자 했던 복잡한 모습 그려야 함

윤비: 독일통일. High imperialism으로 이야기. 제국주의는 고대 로마부터 존재했는데 근대 제국주의는 역사적, 질적으로 나누고자 한 것. 19세기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이는 그 전은 이름없는 영국 패권이 무의식, 무의지적으로 작동했는데, 미국이 상업적 이익으로 등장하면서, 이미 신대륙의 식민지 선점이 끝남. 1870-80년대 독일에는 이미 정해진 것을 뺏을 수 밖에 없음. 밖에서 내부적 문제 해결 안되면서, 제국주의로 표출된 것임.

하영선: 그런 한 얼굴이 있는 것이고. 만약 동주적인 시각에서 receiver의 관점을 보면 서양질서가 다가오는 모습은 군사와 산업혁명, 이념도 장착한 형태로 다가와서 동아시아가 난장판이 된 것을 보았음. 이를 막연하게 유길준의 양절체제 딜레마였다고 하면 이는 contents가 포함되지 않은 언어임. 19세기를 뭐라고 불러야 하나?

김성배: 일본이 membership을 가질 때, 중화질서를 dismantling한다면서 이야기가 끝남.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한 위치가 다시 확인된다는 생각. 예를 들어서 중국이 건륭제 때 조선사절들로 하여금 인사시키도록 한 것은 우리를 활용한 것. 조선은 천자의 권력을 정치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중요한 표현을 담당하는 역할이 있었음. 가장 모범적인 베트남, 유구, 조선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남은 조선을 활용. 이렇게 동아시아 패권질서에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영향력 싸움으로만 보

기 어려움. 한국은 굉장히 이중적이었음. 중국과 관계에서 쿨하게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문명적 측면에서는 복잡하게 위치선정. 한국적 국제정치를 한다면 1894년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할 수 있음.

송지예: 반드시 한국적인 입장이지 않더라도 스텝의 맥락 안에서 이야기해줘도 사회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일본, 중국이 서양질서를 사회로 인식했을까. 먼저 society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쓰는 것 같은데 일본, 중국도 그렇고 유럽질서를 개별 국가들로 만났는데. 제국주의이론으로도 설명되고, 영국학파적으로도 이해되지만. 한국이 생각하는 유럽질서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구성주의의 사회화 과정에서 전략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일본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도 있는데, 꼭 단순히 프랑스, 독일, 영국적인 것 중에서 선택한 것인가? 그렇게 구분한 것도 아니지 않나.

윤비: receiver side를 본 스텝의 그림은 영국학파가 그린 것이 한 모양의 패키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임. 그 당시 이론가들이 말한 모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그리는데, 사실 우리가 전파이론을 잘 살펴보면 받은 것을 패키지로 받아들이지 않음.

손열: 『세계정치』의 국제사회의 특집과정에서 참여했음. 당시 지식의 환류까지는 갔지만 국제사회론을 가지고 동아시아 전체를 설명하려면 난점이 있었음. 오늘 와서 답을 듣고자 했던 것은 저쪽이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라고 하는데, 여기는 non-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기의 모습도 좀 다른데. 너무 지식의 환류 수준으로 가버리는데, 그 이상 20세기 질서는 쓰기 어려움. 그 다음에 전체 국제사회의 팽창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 시기를 쓰기 어려움. 지역적 국제사회의 논의까지 가서 regional society, community, regionalism. Thick-international society, thin-international society로 나눔. 부잔(Buzan)이 본 지역공동체까지 갔고, 그 정도로 개념이 가게 되지만 21세기 동아시아를 기준에서 어디를 찾을 수 있는가? Complex로 보긴 어려움. 19세기와 동아시아 지역을 국제사회라는 틀로 본다면 유럽중심적으로 보게 되는데, 밖의 세상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권역, 의미권, 문명 등 말은 붙일 수 있는데 19세기를 무슨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인지..

하영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 동아시아론이 본격적으로 뜨는 듯하다. 오늘날에는 시진핑, 케리 간의 dream의 싸움이 있고, stage별로 보면 군사, 경제는 합의가 된 것 같음. idea나 knowledge 중에서는 뭐라고 부를 것인가? 담론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중국도 이 부분에서는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함. norm파트는 일방적으로 diffusion은 안 된다. 그래서 싸움이 historical하거나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가고자 함. 우리도 그러한 논쟁의 대열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데, 아무런 배경적 공부가 없다면 또 따라가게 되지 않는가? 이 논의는 국제정치학계나 지역연구에서 커질 논의임. 한국이 가진 Dream을 아름답게 보이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윤비: 정말 웨스트팔리안 체제가 존재하는가? Periphery가 보는 근대는 어떠한가. 웨스트팔리아 체제를 볼 때, 폴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폴란드는 빈 체제에서 나라가 조각되는 상황을 겪었고 슈미트가 말한 것과 같이 주권불가침에, 웨스트팔리아적인 규범에 근거한 안과 밖의 구분

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음. IR도 조금 공부 한 팀은 그런 debate는 함. 거기서 나아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package로서 model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었다는, 모델의 충돌사로만 역사를 구성해낼 수 있을까?

하영선: 따라서 윤 교수도 19세기를 해야 하고, 19세기를 한 쪽에서는 사상사, 국제질서사의 frame속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고민해서 debate가 걸려야 한다.

이헌미: 월츠가 제3의 이미지를 이야기했는데 버릴 수도 없음. 실제 19세기 문건을 들여다보면 국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한국, 국제변수에 엄청 영향을 받았고. 국제사회라고 일부 분만을 재현하기 어렵다는 것. 우리가 보는 3rd image를 어떻게 쓸지 생각해야

하영선: 중국도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개화, 문명 쪽 이야기 안 했음. 이제 dream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회주의 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1885-1895년의 귀신들이 다시 무대에서 살아날 것이다. 푸 샤오이가 미국만 norm-making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나라는 발상은 재미있는 것이, 우리도 middle power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중국이 middle power보다는 크지만, norm market에서 어떻게 시장을 넓혀갈 것 인가.

김성배: Normative power로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veto를 할 수 있겠는가

하영선: 비확산 norm도 가져가면서, 평화, 자주, 핵 자주권도 가져가겠다는 중국의 입장

김성배: 그 안에서 한국은 할 것이 있는가?

손열: Norm success의 계량적 기준이 무엇인가?

김성배: 19세기에서 강압의 요소도 있지만 자진해서 들어오는 요소들도 있었다. 문명론지개략의 싸움처럼 결국 서양을 보니까, 힘이 중앙집권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일본문명의 어느 핵심이 되는가가 문명론지개략의 팀의 논의였음. 개화론 팀에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봄.

이헌미: 하지만 civilized power에서는 권력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것인데.

송지예: 둘 다 civilization이라고 안 보는 입장이 아닌가? 유럽은 문명이 아니고, empire라고 보는 것이 맞나?

하영선: 동주는 괴로우니까 문화권으로 엮었음. 경제제국주의적으로도 보기도 어렵고, 정치군사적 제국주의도 어렵고, 복잡한 문화전파현상도 일어나므로 문화권이 충돌하는 속에서 complex하게 일어나는 관계로 보자고 한 것.

송지예: 제국주의가 유럽문명의 속성인가, 혹은 유럽의 core국가들이 유럽중심의 중심부와 주변부

의 만남이 아니고, 두 변방들 간의 만날 확률은 적은가? 유럽의 변방이나 아시아의 변방이 만난다면? 유럽대국과 이슬람 문명권 하의 접경지대에서 만난다면?

윤비: 이태리 통일 이전에, 이태리의 royalist들과 마치니주의자들 간의 대립이 있었음. 이태리 통일 찬성론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다. 이탈리아의 정체성 의식은 크게 남았지만 이탈리아가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이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질서다라고 봄. 따라서 유럽질서들이 망하기 전의 질서를 보자고 해서 아시아의 질서를 본 글이 있음. 비문명권이기도 하지만 아시아가 유럽의 질서를 망치기 가기 전에 순수했다. 그 사람들의 논의는 유럽이 생각하기에 유럽의 팽창을 주도하지 못한, 질서에 편입하기 싫어했던 아시아인들이 있었고 또한 아시아사람들은 어떻게 이를 봤을까에 관심을 둬. 이러한 과정을 보려면 역사가 되어야 함.